

## 학교폭력 피해 경험 중학생의 정신건강과 신체적 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상영<sup>1\*</sup>, 전용관<sup>2</sup>

<sup>1</sup>강원관광대학교 간호과, <sup>2</sup>강릉원주대학교 물리교육학과

### A Study on the Effect of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Mental Health and Physical Symptoms on Suicide Thinking

Sang-Young Han<sup>1\*</sup> and Yong-Gwan Jeon<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Kwangwon Tourism College

<sup>2</sup>Major in Physics Educatio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T시에 위치한 4개의 중학교에서 총 17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7.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자살생각에 따른 공통적인 유형별로는 성별, 학년, 부모유형,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정신건강,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신건강과 자살생각은 통계적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신체증상은 자살생각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 중학생들의 정신건강, 신체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자살생각에 대한 예방 접근방법과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학교현장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factor giving effect to Adolescent's suicide thinking by grasping the degree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and mental health and physical symptom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76 persons in middle school students. As collected data was using SPSS Win 17.0 for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school violence, mental health and physical symptoms between the correlation analysis conducted to identif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at the level of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that were analyzed. school violence impact on suicide thinking. mental health impact on suicide thinking.

**Key Words** : School violence, Mental health, Suicide thinking

#### 1. 서론

2012년 새해부터 대구 어느 중학생의 같은 반 친구들에 의해 잔인한 폭력과 고문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고 보도한 뉴스를 통해 우리사회의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1]. 대통령도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2]. 이

제 학교폭력은 단순히 사회현상, 학교 교육현장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의 언론보도나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이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금품갈취 및 집단 따돌림 같은 심리적 폭력, 괴롭힘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고등학생에서 초등학교까지 그 연령이 낮아지고, 질적으로도 집단화, 흉폭화 되고 있다[3]. 또한 학교

\*Corresponding Author : Sang-Young Han

Tel: +82-33-550-6376 email: laurabest@hanmail.net

접수일 12년 09월 25일 수정일 (1차 12년 10월 08일, 2차 12년 10월 22일, 3차 12년 10월 31일) 게재확정일 12년 11월 08일

폭력은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 정신장애로는 우울장애, 불안, 신체기형공포장애, 대인공포증, 비전형성 정신병 등으로 나타났다[4], 신체적 증상으로는 고혈압, 간장 질환, 신장질환, 위궤양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위해 요인이며, 이외에도 변비나 호흡곤란, 두통, 심장빈맥 등의 신체적 건강문제들을 유발시킬 수 있다[5].

[6]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이 요구되는 불안의 시기이며, 급격한 성장은 신체적 변화의 적응과 성인기로의 생활 확대에 따른 적응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했다. 이 시기는 의존과 독립이라는 갈등과, 반항, 외로움, 영웅심등의 급격한 감정변화로 자기의 의지와 사고를 통제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반사회적 폭력행동을 표출하게 된다[7]. 청소년기의 중학생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은 장래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다. 청소년 자살 실태결과는 4700명의 청소년 58.8%가 자살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11.1%가 자살시도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 자살 사고율은 전년대비 2006년 23.4%, 2007년 23.7%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 즉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한다는 의미이다[8]. 청소년들의 자살은 개인, 가족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에 엄청난 충격과 손실로 다가온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은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정신질환, 우울, 절망, 자아존중감, 충동성 등이 자살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9].

이와 같이, 중학생들의 학교폭력은 이 사회의 미래의 건전함을 말해줄 수 있는 중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중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신체증상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중학생들의 자살생각 영향요인들을 규명하고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예방접근방법과 프로그램 유형을 탐색함으로써 중학생의 자살에 관한 전반적인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피해경험 중학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학교폭력 피해경험 중학생의 정신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 학교폭력 피해경험 중학생의 신체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편의 추출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자는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총 7개교의 중학교 중 4곳을 직접 방문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8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내용을 설명한 후 일제히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 및 통계처리에 부적합한 4부를 결측값으로 제외하고 총 176부의 질문지를 분석하였다.

### 2.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자살생각이며, 독립변수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및 신체증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 항목은 총 5개 영역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및 자살생각 정도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제1가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및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2가설]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은 각각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정신건강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신체증상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1 학교폭력 피해경험 측정도구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도기봉(1998) 이 직접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10]. 질문지의 내용은 학교폭력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 신체적 폭력 3문항, 심리적 폭력 3문항, 언어적 폭력 3문항, 괴롭힘 4문항, 금품갈취 4문항 등 정제 17개 문항을 통해 피해경험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0.92였다.

#### 2.2.2 정신건강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검사’는 원애경

(2005)이 재구성하여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11]. 원칙도는 분노폭발형 성격, 불안장애, 우울병 증후, 성격장애, 편집증후, 대인관계 예민성 등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응답방식의 자기보고식 검사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평정척도이며 총 문항수는 31문항이다. 하위척도별 총점이 낮을수록 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하고 높을수록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0.91이었다.

### 2.2.3 신체증상 측정도구

Thomas emd[12]이 고안한 신체증상 목록을 이미숙등[13]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청소년 증상목록(Adolescent Symptom Checklist: ASC)을 사용했다. 전체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증상의 주관적 심각도를 추정할 수 있는 개방형 보조문항이 3문항이 있다. 22문항 중 1~21번까지는 남녀 공통으로 주어지면 22번 문항은 여학생만 응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공통문항인 21번까지 문항을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6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증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0.95였다.

### 2.2.4 자살생각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심각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Beck의 Scale for Suicidal Ideation(SSI: Beck, Kovacs & Weissman, 1979)을 사용하였다[14]. 이것을 자기 보고형 질문지로 변형시킨 것을 신민섭(1993)의 척도를 사용하였다[15]. 총 19문항이며 3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0.79였다.

### 2.2.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적용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및 자살생각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와 F검증(ANOVA)을 사용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및 자살생각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값을 살펴보고 각 측정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중학생이 94명(53.4%), 여자 중학생이 82명(46.6%)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72명(40.9%), 3학년이 53명(30.1%), 2학년이 51명(29.0%)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분포는 종교가 없는 중학생이 106명(60.2)로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은 ‘하’가 68명(38.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부모에 대해 현재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는 108명(61.4%)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는 전체 응답자중 71명(40.3%)이 ‘중상’수준인 것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공식적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155명(88.1%)이 교내 처벌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76		
변 인	항 목	빈도(%)
성별	남	94(53.4)
	여	82(46.6)
학년	1학년	72(40.9)
	2학년	51(29.0)
	3학년	53(30.1)
종교	무	106(60.2)
	기독교	39(22.2)
	불교	19(10.8)
	천주교	12(6.8)
경제수준	상	24(13.6)
	중상	29(16.5)
	중하	55(31.3)
	하	68(38.6)
부모생존여부	부모 모두 생존	108(61.4)
	부친사망	17(9.7)
	모친사망	7(4.0)
	부모이혼·별거	13(7.4)
	부모사망	5(2.8)
	계부	5(2.8)
	계모	16(9.1)
학업성취도	친척시설수용	5(2.8)
	상	3(1.7)
	중상	71(40.3)
치벌경험	중하	58(33.0)
	하	44(25.0)
	있다	21(11.9)
	없다	155(88.1)

### 3.2 인구사회학적 변인별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자살생각의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표 2].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중학생의 성별( $t=-2.48, p<.05$ ), 학년( $F=18.84, p<.001$ ), 가정생활정도( $F=5.90, p<.05$ ), 부모유형( $t=-6.17, p<.001$ ), 학업성취도( $F=6.21, p<.001$ )에 대한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유무와 학교에서의 처벌경험유무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변인에 따라 중학생의 정신건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종교와 학교차별 경험을 제외한 성별( $t=-2.39, p<.05$ ), 학년( $F=17.88, p<.001$ ), 가정생활정도( $F=3.42, p<.05$ ), 부모유형( $t=-4.52, p<.001$ ), 학업성취도( $F=5.82, p<.05$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증상은 가정생활정도와 부모유형을 제외한 성별

( $t=-4.57, p<.001$ ), 학년( $F=11.80, p<.001$ ), 종교( $t=-4.27, p<.001$ ), 학업성취도( $F=7.14, p<.001$ ), 학교차별경험( $t=-7.48, p<.001$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살생각에 따른 유형별로는 성별( $t=-3.44, p<.05$ ), 학년( $F=10.54, p<.001$ ), 부모유형( $t=-6.53, p<.001$ ), 학업성취도( $F=2.68, p<.05$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그 외 종교, 가정생활정도, 처벌경험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3.3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정신건강( $r=.900$ ),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 $r=.738$ ), 정신건강과 자살생각( $r=.704$ )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증상과 자살생각( $r=.150$ )의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2] 인구사회학적 변인별 학교폭력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자살생각의 차이

[Table 2] The Difference between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Mental Health and Physical Symptoms, Suicide Thinking

(N=176)						
변인	항목	학교폭력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자살생각	Scheffe
		M±SD	M±SD	M±SD	M±SD	
성별	남	2.33±.97	2.42±.65	2.88±1.28	0.65±.33	
	여	2.70±.98	2.69±.79	3.67±1.02	0.83±.35	
	t	-2.48	-2.39	-4.57	-3.44	
	p	.014*	.018*	.000***	.001**	
학년	1학년 <sup>a</sup>	3.00±.99	2.89±.79	3.76±.82	.85±.37	a>b,c
	2학년 <sup>b</sup>	2.06±.43	2.18±.45	2.89±1.35	.57±.28	
	3학년 <sup>c</sup>	2.24±1.10	2.44±.66	2.90±1.35	.72±.33	
	F	18.84	17.88	11.80	10.54	
	p	.000***	.000***	.000***	.000***	
종교	없음	2.39±.94	2.52±.70	2.96±1.29	.70±.37	
	있음	2.67±.13	2.58±.77	3.69±.99	.78±.32	
	t	-1.76	-.547	-4.27	-1.39	
	p	.081	.585	.000	.167	
	F	1.74±.67	2.13±.42	2.87±1.37	.61±.35	
가정생활정도	중상 <sup>b</sup>	2.55±.80	2.53±.60	3.02±1.11	.65±.26	d>c,b,a
	중하 <sup>c</sup>	2.63±1.04	2.61±.80	3.57±1.16	.74±.37	
	하 <sup>d</sup>	2.64±1.02	2.65±.76	3.22±1.24	.80±.36	
	F	5.90	3.42	2.42	2.36	
	p	.001**	.019*	.068	.073	
부모유형	부모 생존	2.13±.70	2.33±.51	3.30±1.23	.60±.28	
	이혼/별거 등	3.07±1.10	2.88±.88	3.13±1.23	.93±.35	
	t	-6.17	-4.52	.91	-6.54	
	p	.000***	.000***	.367	.000***	
	F	1.86±.14	1.89±.11	1.57±.08	.68±.09	
학업성취도	중상 <sup>b</sup>	2.16±.88	2.32±.58	2.90±1.32	.64±.35	d>b>c
	중하 <sup>c</sup>	2.67±.91	2.69±.70	3.38±1.12	.78±.35	
	하 <sup>d</sup>	2.87±1.12	2.77±.87	3.75±.98	.81±.34	
	F	6.21	5.82	7.14	2.68	
	p	.000***	.001**	.000***	.049*	
처벌경험	있다	2.64±1.03	2.47±.72	2.03±.73	.74±.26	
	없다	2.48±.99	2.56±.73	3.41±1.19	.73±.36	
	t	.664	-.486	-7.48	.199	
	p	.507	.628	.000***	.844	

\*p<.05, \*\*p<.01, \*\*\*p<.001

[표 3]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학교폭력피 해경험	정신건 강	신체증 상	자살생 각
학교폭력 피해경험	1			
정신건강	.900**	1		
신체증상	.059	.127	1	
자살생각	.738**	.704**	.150*	1

\*p<.05, \*\*p<.01

[표 4]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Table 4] The Effect of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on Suicide thinking

구분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성별	.147	.051	2.88**	.078	.111	2.11*
종교유무	.074	.028	2.68**	.020	.053	.991
가정생활정도	.071	.024	2.99**	.011	.032	.611
학교폭력피해 경험				.246	.697	12.80*
R <sup>2</sup>	.142			.562		
Adj. R <sup>2</sup>	.127			.551		
R <sup>2</sup> 변화량	.142			.562		
F변화량	9.47***			54.77***		

\*p<.05, \*\*p<.01, \*\*\*p<.001

### 3.4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1) 제1가설

[제1가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중학생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한 중학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통제변수인 성별, 종교유무, 가정생활정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독립변수로 정하고,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지정한 후 표 4에서 모형1을 보는 바와 같이 통제변수를 투입한 다음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모형2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F=9.47, p<.001), 자살생각에 대한 총 변화량의 56.2%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비표준화계

수 B값이 .246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많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1가설은 지지되었다.

#### 2) 제2가설

[제2가설] 정신건강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신건강이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건강은 자살생각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38.44, p<.001). 즉 자살생각 총 변화량의 52.6%가 정신건강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비표준화계수 B값이 -.315로 정신건강은 자살생각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정신건강이 높을수록 자살에 대한 생각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자살생각에 대한 독립변인 정신건강의 추가로 R<sup>2</sup>의 설명변화량이 38.4%가 증가함으로써 자살생각에 대한 고유 기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변화량=138.44, p<.001). 따라서 제2가설은 지지되었다.

[표 5] 정신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Table 5] The Effect of Mental Health on Suicide thinking

구분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성별	.147	.051	2.88**	.078	.111	2.03*
종교유무	.074	.028	2.68**	.038	.102	1.85
가정생활정도	.071	.024	2.99**	.023	.069	1.28
정신건강				-.315	.652	-3.43**
R <sup>2</sup>	.142			.526		
Adj. R <sup>2</sup>	.127			.515		
R <sup>2</sup> 변화량	.142			.384		
F변화량	9.47***			138.44***		

\*p<.05, \*\*p<.01

#### 3) 제3가설

[제3가설] 신체적 증상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학생의 신체적 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증상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따라서 신체적 증상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기각되고 귀무가설이 지지되었다.

**[표 6]** 신체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Table 6]** The Effect of Physical Symptoms on Suicide thinking

구분	모형1			모형2		
	B	β	t	B	β	t
성별	.147	.051	2.88**	.146	.208	2.72**
종교유무	.074	.028	2.68**	.073	.194	2.58*
가정생활정도	.071	.024	2.99**	.070	.009	2.94**
신체증상				.003	.009	.114
R <sup>2</sup>	.142			.142		
Adj. R <sup>2</sup>	.127			.122		
R <sup>2</sup> 변화량	.142			.000		
F변화량	9.47***			.013		

\*p<.05, \*\*p<.01

#### 4. 고찰

청소년기에 발생한 자살은 가족과 사회에 매우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자살은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죽음을 부과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살과 같은 위험 행동을 쉽게 저지르고 그 과정이 매우 충동적이다[16]. 우리나라의 중학생 자살 관련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0년 남자 중학생이 15.6% 대비 2011년에는 15.2%로 0.4%가 감소한 반면 여자 중학생은 2010년 23.9% 대비 2011년에는 25.0%로 1.1%가 증가하였다[17]. 이렇듯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심각한 수준의 자살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해가 지날수록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중학생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을 독립변인으로 보고 각 변인들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나는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정신건강, 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피해, 정신건강 및 신체증상의 관계는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다.

먼저 중학생의 자살생각은 성별, 학년, 부모유형, 학업성취도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자살생각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8]. 여자청소년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은 하위권 성적의 학생

일수록 자살생각이 높다는[19]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미국의 건강위험행태조사 대상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미국 청소년 건강위험행태조사에서 중학생에 해당하는 9학년의 자살시도율이 11학년이나 12학년 학생에 비해 높다고 보고되었다[20]. 이렇게 저학년 중학생의 자살시도율이 높은 것은 청소년기의 초기이며 불안정하고 급격한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면서 자아정체감 형성 발달 단계에 직면하여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부모와 함께 사는 학생에 비해 자살시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 같다[21]. 현재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한 부모와 사는 자녀들이 증가하고 별거나 부모의 실직 등으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p<.001). 이것은 [2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생각의 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로 검증되어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또래로부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고통은 물론 심리적 외상을 남긴다고 보고하고 있다[23]. 또한 직접적인 폭력의 희생자는 학교에서 또래로부터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폭력의 목격자가 되는 것이며, 이것이 자살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24]. 따라서 학교폭력피해에 노출된 중학생들을 조기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은 그 피해의 결과로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 중 하나라고 사료된다.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의 하나는 정신건강과 부적인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p<.01). 이것은 정신건강이 양호할수록 자살 충동의 변화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살충동 경험의 변화가 정신건강 변인들과 맞물리면서 3차년도에 걸쳐 지속적인 자살충동 경험을 한 청소년의 경우 다른 청소년보다 정신건강이 나빠진다고 보고하였고 반대로 자살충동이 없다면 정신건강도 회복된다고 하였다[23]. 이런 연구결과로 볼 때 중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학생이 느끼는 신체증상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신체증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23],

정신건강의 일부 요소인 우울 정도에 따라서 신체 증상을 경험하는 빈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인의 영향을 받은 신체증상은 자살 생각에는 영향력이 없었다. 이것은 신체증상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독립적인 변인으로서 신체증상은 자살생각에는 긴밀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중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을 변인으로 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자살생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추가 매개로 하여 중학생의 자살예방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청소년 자살관련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구 모형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4개의 중학교에서 총 17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하였고, 각각의 변인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인은 자살에 대한 생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7.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 정신건강, 신체증상 및 자살생각은 공통적으로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정신건강과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정신건강과 자살생각은 통계적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신체증상은 자살생각과 약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정신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자살에 대한 이해와 접근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학생 자살은 단지 개인의 심리적인 사건으로만 국한 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이슈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학적 중재방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학년을 고려한 단계별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나 예방적 프로그램을 전문가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 특성과 유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범위 속에 중학생들을 위한 복지 및 상담센터를 연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위계 생활지도 및 심리·사회적 영역의 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전략과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연구에서 시행되어진 자살생각에 대한 양적 연구에 집중화 되어있는 연구결과를 탈피하여 자살관련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질적 분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요인분석에 기초한 예방 전략과 중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The Kyunghyang Shinmun. www.khan.co.kr, 2012.
- [2] http://www.yonhapnews.co.kr, 2012.
- [3] Jeon, K. B., "Review of The act on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action plan", Master thesis, Master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7.
- [4] Jeong, J. S.,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victims of school violence, Master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2008.
- [5] Kim, H. L.,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stress coping behavior and health problems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0.
- [6] Olweus, D., "Bully/Victim problems at school: Facts and effective intervention",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Vol.5(1), pp.15-22, 1996.
- [7] Moon, M. N., "Victimization of youth violence in school impact on the school maladjustment", Master thesis, Kyonggi National University, 2010.
- [8]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The Research Associated with Adoliescents' Suicide", Announced Report, 7, October, 2008.

- [9] Ko, S. "The Effects of School Environment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9.
- [10] Do. G. B.,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Device of Middle School Student's Violence Master thesis, Taegu National University, 1998.
- [11] Won, A. K., "A Study on the Influence of Juvenile Trauma in Procedure Stage with Mental Health and Apathy Symptoms, Doctoral thesis, Inha University, 2005.
- [12] Thomas G., "Physical symptoms and self-images in a group of normal adolescents", *Psychosomatics*. 29, pp.73-80, 1988.
- [13] Lee, M. S., Choi, Y., Yu, J. S., "The Relationship of Somatic Symptoms and Self-esteem in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39(2), pp.323-333, 2000.
- [14] Beck, A., Kovacs, M., & Weissman, A.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 The Scal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47, pp.343-352, 1979.
- [15] Shin. M. S., "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1992.
- [16] 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Suicidal Prevention system of Adolescence, Seoul, 2007.
- [17]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Sleep, can not sleep, Older Children", *Announced Report*, 13, December, 2011.
- [18] Lee, C. S., Kweon, Y. R., & Kim, S. J., "The impact of school bullying victim and depression on suicidal ide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16, pp.32-40, 2007.
- [19] Kang, S. O., "A Study on the effect of juvenile's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stress on suicide thinking", Master thesis, Kangnam University, 2011.
- [20] Eaton, D. K., Kann, L., Kinchen, S., Ross, J., Hawkins, J., Harris, W. A., et al.,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United States",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Vol.55(5), pp.1-108, 2006.
- [21] Park, E. O., "The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Attempt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8(3), pp.465-473, 2008.
- [22] Kim, J. Y. et al.,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chool violence on the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7, pp 121-149, 2010.
- [23] Park, B. K.,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 on Self-Esteem and Depression as Mediators",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Vol.16(3), pp.505-522, 2007.
- [24] Baldry, A. D., & Winkel, F. W.(2003). Direct and vicarious victimization at school and at home as risk factors suicide cognition among Itali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Vol.26, pp.703-716, 2003.
- [25] Moon, K. S., Im, K. H., "Extinction, Formation, and Duration of Suicidal Impulse and the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States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1(3), pp.665-683, 2007.
- [26] Lee, H. J., & Kim, M. H., "A path model for self-identity and hopeless to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14, pp.243-264, 2007.

**한 상 영(Sang-Young Han)**

[정회원]



- 2011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강원관광대학교 간호과 교수

<관심분야>

모성간호, 아동간호, 노인간호

**전 용 관(Yong-Gwan Jeon)**

[정회원]



- 1997년 3월 ~ 1999년 8월 :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2005년 3월 ~ 2008년 2월 : 강릉원주대학교 박사수료
- 2009년 3월 ~ 현재 : 강원도 태백시 황지중학교 교사

<관심분야>

아동간호, 청소년교육, 물리교육